

재즈로 물드는 '전주미니재즈페스티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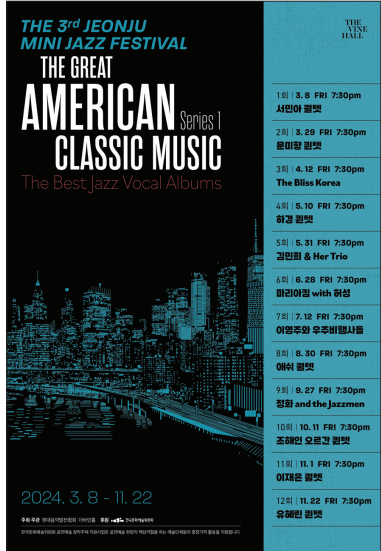
전북권 유일 '공연예술창작주체 지원사업' 음악 분야 최종 선정... 3월 8일~11월 22일 개최

현대음악발전협회와 더 바인홀이 공동 주최하는 제3회 전주미니재즈페스티벌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 공연예술창작주체 지원사업' 음악 분야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각 분야별 공연제작 및 발표 등 공연예술 창작활동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연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주 삼천동에 위치한 80석 규모의 라이브 콘서트홀 더 바인홀에서 개최되는 전주미니재즈페스티벌은 전주 유일의 재즈 전문 축제다. 지난 2022년과 2023년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의 후원을 받아 진행, 지난해 총 10회 공연 중 8회가 매진되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오는 3월 8일부터 11월 22일까지 매일 금요일(월 1~2회)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는 '제3회 전주미니재즈페스티벌'은 김민희, 마리아김, 박하경, 애쉬, 조해인, The Bliss Korea 등 더 바인홀 김주환 대표가 직접 선정한 12팀의 국내 실력과 재즈보컬리스트들이 'The Great American Classic Music Series : The Best Jazz Vocal Albums'라는 콘셉트 아래, 80분(인터뷰



전주미니재즈페스티벌 공연 포스터

20분/공연 60분) 간, 각자 뽑은 최고의 보컬 명

반을 주제로 공연을 펼친다. 특히 올해 페스티벌에서는 12회 공연 뿐만 아니라 4월부터 8주 과정(매주 1회)으로 재즈 기타리스트 겸 부산동의대학교 산업문화대학원 뉴미디어학과 주임교수인 탁경주 교수의 재즈역사 강의로 준비돼 있다.

더 바인홀 김주환 대표는 "전주미니재즈페스티벌을 운영하며 지역민들의 삶에 재즈가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며 "근사한 음식이나 와인 없이 오롯이 재즈 뮤지션들의 음악에 집중하고 함께 호흡하는 관객들을 보며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4년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 해인만큼, 이번 전주미니재즈페스티벌이 전북을 대표하는 음악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티켓 예매는 8일부터 네이버 예약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더 바인홀 공식 카카오톡 채널 및 전화(063-232-610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 '빛과 바람, 한지' 기획전시

9일~3월 30일 전주천년한지관서 개최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2월 9일부터 3월 30일까지 전주천년한지관에서 전통한지를 주제로 한 '빛과 바람, 한지' 기획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는 이정민·엄윤나·한아름·조호익 등 4인의 작가가 참여, 전통한지를 활용해 계절이 바뀌는 신비로운 순간을 담은 다양한 한지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에서 참여한 작가들은 "전주한지의 대표적 생산지로 불리던 흑석골에서 사람의 운기를 담은 한지를 통해 봄벌의 따사로운을 전하고자 한다"며 "전시관을 가득 채운 전통한지의 편안한 숨결을 많은 분들이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도영 원장은 "천 년을 이어온 전통한지는 강하면서 유연하고 약하지만, 단단하게 변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표현의 다양성을 시각화하



기에 적합하다"며 "이번 전시는 자연의 교감과 세월의 흐름이 담긴 한지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천년한지관 누리집이나 전통한지팀

(063-281-1638)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전주천년한지관은 전주 전통한지의 보전과 계승을 위해 선자지(扇子紙) 복원, 전주한지장 후계자 양성 등의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장은성기자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조감도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 '순항'

익산시, 3월 센터 명칭 공모 실시... 올해 하반기 운영 개시 예정

익산의 분산된 세계유산과 백제왕도 핵심 유적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탐방 센터가 올해 하반기 문을 연다.

익산시는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가칭)'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사업 일환으로 추진된다. 백제왕도 핵심유적에 대한 교육과 체계적 정보를 제공하고, 탐방을 안내하는 등 방문객 편의를 증진하는 공간의 역할을 할 계획이다. 세계유산 문화도시인 익산의 대표적인 관광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센터는 3개동 지상 2층(연면적 3,650㎡) 규모

로 건립된다. 현재 외부공사를 마치고, 내부 마감공사와 홍보관 구축공사에 들어갔다.

센터는 백제 대표 문화재인 미륵사지 석탑을 떠올리게 하는 처마 끝 선이 특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고도(古都) 경관 인상을 주는 외관 색채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익산 세계유산 탐방 거점센터(가칭)'의 진짜 이름을 찾는 명칭 공모를 오는 3월 실시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를 통해 백제왕도 익산을 여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통합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체류형 관광기반을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설날 한마당 큰잔치 '풍성'

설 연휴기간 풍물놀이·공연·전래놀이·캐리커처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2024년 설 연휴를 맞이하여 고향의 의미를 되새기고 고유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설날 한마당 큰잔치'를 개최한다.

박물관은 설 연휴기간 동안 풍물놀이, 마술·저글링 공연, 가훈 써주기, 캐리커처 체험 등 다양한 행사 및 체험을 진행한다.

10일~12일 오후 2시에 새해맞이 신명나는 풍물놀이로 설 명절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고, 11일 오후 2시에 박물관 로비에서 가훈 써주기 체험으로 감진된 새해 소망을 담은 가훈을 받아 볼 수 있으며 10~12일 낮 12시에 박물관 3층에서 캐리커처 체험이 진행되어 나만의 캐리커처를 가져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또한, 9일 마술공연과 10일과 11일 저글링 공연이 박물관 로비에서 11시에 펼쳐져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과 함께 즐길 수 있게 준비하였으며 9일~12일 14시에 투호놀이, 제기차기, 윷놀이 등을 박물관 앞 광장 주변에 마련하여 우리 고유의 전래놀이를 체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2024년 설 연휴를 맞이하여 고향의 의미를 되새기고 고유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설날 한마당 큰잔치'를 개최한다.

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주요 전시로는 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에 '흠에 심은 사랑의 인술, 쌓인 이영춘' 주제로 농민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생전 이영춘 박사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 유품과

사진, 영상 자료 등을 전시되어 있고, 박물관 2층 시민열린갤러리에 진순화 개인전 '아름다운 인연' 전시를 마련했다.

또한, 근대미술관에서는 박물관 소장품전 '물결 따라 물꽃 남고', 장미갤러리에서는 노금순 작가의 '따스함이 깃든 : 化 (시선)'의 전시가 있어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 및 문화 향유 기회를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설 당일(10일)에는 박물관을 무료로 운영하고 연휴기간 동안 한복을 입고 방문하면 무료입장을 할 수 있어 많은 귀성객 및 시민들이 박물관에 방문하여 '설날 한마당 큰잔치'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박물관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이 박물관에서 준비한 다양한 문화행사와 전시를 통해 가족들과 즐거운 설 명절 연휴를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